# "조사선은 21세기 주도할 핵심사상"

◇ '한국선 국제학술대회'에는 16명의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참석, '조사선'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 무차선회 '한국선 국제학술대회'

불성(佛性)의 실체에 대한 서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한국 조사선(祖師禪)의 전통 확립을 통해 조사선을 21세기 세계문명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사상으로 제시하기 위한 '한국선 국제학술대회'가 19~22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개최됐다. 국내·외 16명의 불교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분과 동북아시아의 조사선 전통, 제2분과 여러 불교 전통하에서 본 불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 제3분과 한국 선불교 전통에서 본 불교적 깨우침에 대한 이해, 제4분과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그 요지를 지상중계한다.〈편집자주〉

◇ '한국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외국 불교학자들이 학술대회 개회 법회에 참석, 서옹스님께 합장하고 있다.

◇랭카스터 교수

◇기무라 교수

◇김지견 박사

◇브룽크호스트교수

◇매크래 교수

◇샤프 교수

◇갈레펠트 교수

◇니시무라 교수

◇마조모토 교수

◇종림스님

◇성본스님

◇박성배 교수

◇심재룡 교수

◇김용정 교수

◇율러 교수

## 1분과: 동북아시아 조사선 전통 — 한국 선불교는 중·일 비해 독창성 확보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서 한국선(禪)의 역할과 의미-루이스 랭카스터(美 버클리대 교수)=한국의 선불교는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사상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20세기에 발전한 동아시아 불교의 학문적 연구과정에서 연구성과가 미흡했던 관계로 그 특성을 내외에 밝히지 못했다. 한국 선불교가 재조명된다면 중국의 선(Ch'an)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발전에 보다 명확한 그림을 제시해줄 수 있다. 특히 불교가 억압당했던 조선시대에 불교정신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명상' 때문이며, 그 원동력에 대한 주의깊은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선불교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논평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선불교가 21세기에 정신적 중심이 될 수 있는가. 랭카스터=지역성과 국제성을 갖춤과 동시에 다양성을 지닌 이념으로 발전한다면 가능하다.

▪보리달마의 보원행과 선불교의 형성-기무라 기요다카(동경대 교수)=선의 실천적 견지에서 보리달마의 보원행(報怨行)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선불교 전통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다. 현대세계에서 효과적인 선불교를 다시 살리고자 한다면 보원행의 의미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5세기경 중국에 〈능가경〉이 전래된 이후, 선불교의 형성으로 보리달마가 1대조사로 여겨지고 있으나 조사선이 주창되기 시작하면서 보리달마가 수행 실천법의 하나로 '고통의 감내'를 강조한 보원행은 무시돼 왔다. 조사선의 계승자로서 자처하고 있는 선승(禪僧)들은 '보리달마가 주창한 보원행을 인식할 만한 열의가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한다. 보원행이 대승불교의 불가결한 하나의 요소가 될 때 선불교는 대승불교의 한 학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평 윤원철(서울대 교수)=보리달마의 보원행이 잊혀지게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기무라=돈오사상이 대두되는 정신 풍토상 그렇게 된 것으로, 보원행의 '잊혀짐'은 좋고 나쁨을 떠나 당시 동아시아 선의 역사적 전개로 인식해야 한다.

▪돈황단경(敦煌壇經) 재고(再考)-김지견(前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돈황출토 불교자료의 하나로 일본 야부끼게이끼(矢吹慶輝·1879~1939)가 선보인 사진판 〈돈황단경〉을 수록한 〈명사여운〉이 1930년에 간행된 이후, 연구되고 있는 여러 전적들은 돈황본 〈육조단경〉을 텍스트로 삼지 않고 일본 흥성사본을 모본으로 교감·역주해 심각한 오류가 발생시키고 있다.

논평 종묵스님(서울 경국사)= 〈돈황단경〉의 성립설의 문제는 성립년대 등 여러 이해와 서로 맞물려있다. 어느쪽에서든지 확실한 발판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확실한 논증을 더해 연구자들이 공통의 인식에 이를 것이다.

## 2분과: 불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 — 불성내재론·연기법 이원론적 구조

▪인도불교에서의 자아(自我)와 선정(禪定)-요한네스 브룽크호스트(스위스 로잔느대 교수)=열반을 위한 전제조건인 움직이지 않는 자아(自我)에 대한 관념은 고전 힌두사상에서 등장했으나 붓다는 윤회하는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붓다는 자아에 대한 지식을 열반에 이르는데 결코 필수적인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나 그의 추종자들이 처음에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여래장(如來藏)과 같은 형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논평 김호성(동국대 교수)=자아와 명상의 관계에만 너무 치우쳐 인도불교의 명상 체계속에 녹아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간과해내지 못했다. 비불교적 요소들이 불교명상 안에 융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교명상의 본질적 요소들은 여전히 무아사상 위에 자리하고 있다.

▪불성에 대한 논의: 중국불교의 선문답 시원-존 매크래(美 인디애나대 교수)=선문답의 기록과 간화선의 출현에 대한 8가지의 길을 제시했다. △스승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형태 △지시문의(指事問義)와 같이 질문만 있는 형태 △〈경덕전등록〉과 같이 질문과 답이 있는 형태 △깨달은 스승과 익명의 제자가 등장하여 대화하는 형태 △〈오방편(五方便)과 같이 실제의 스승과 제자가 등장하여 대화하는 형태 △일화를 들어 진의(眞義)를 전하는 형태 △〈절관론(絶觀論)〉과 같이 가상의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형태 △〈조당집〉과 같이 정형화된 스승과 제자의 대화형태 등이다.

논평 허일범(진각대)=〈조당집〉 이전의 교리나 사상적 변화를 감안, 선사상의 교리적 전개속에서 선문답의 시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조당집〉이 선문답을 기록한 최초의 문헌이라면 그 이전과 이후의 문답 형태에 나타난 양상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무정중생의 불성에 대하여-로버트 H 샤프(美 미시간대 교수)=조주선사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한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풀이나 나무에 사는 바로 그 정령(精靈)일 뿐이다. 무정의 불성을 주장하기 위해 쓰인 많은 전략들은 일반적으로 인도불교, 특히 유식과 여래장 교리에서 나온 것(모든 것이 마음이고, 그리고 마음이 불성이라면 불성이 결여된 것은 없다)이다.

논평 신구탁(연세대 교수)=무정중생(無情衆生)의 성불 논의가 갖는 의미와 그것이 중국사상사의 흐름속에서 갖는 의미를 평가해봐야 한다.

▪道元의 〈正法眼藏〉에 대한 고찰-칼 빌레펠트(美 스탠포드대 교수)='현존하는 산과 강들은 옛 부처님들의 도의 구현(道現成)'이라고 표현한 도원의〈정법안장〉에 나타난 사상은 우리에게 자연세계 그 자체가 법임을 가르치는 하나의 경전이다. 도원은 특히 종류의 사상을 인간적 영역으로 확대해 개인의 삶과 불법의 역사로 확장해 놓았다.

▪그의 제자 동령원자(東嶺圓慈)의 텍스트에서 검토된 백은선(白隱禪)의 수행원리-니시무라 에신(하나조노대 교수)=학생들이 깨달음이라는 경험에 도달할 때마다 진정한 선사(스승, 明師)를 방문하지 않으면 자기만족이라는 위험스런 동굴에 떨어질 것이라고 한 동령의 불법 전파는 제자들에게 선의 꺼지지 않는 등불을 전승한 것이다. 일본 임제선의 전통을 계승한 백은혜학 제자 동령은 그의 저서 〈종문무진등론(宗門無盡燈論)〉에서 자기 확신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해 놓았다.

▪禪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마츠모토 시로(고마자와대 교수)='관(觀)'은 불교전통의 초기부터 중요하게 쓰였지만 선불교는 '불관(不觀)'을 깨달음으로 보며 관을 거부했다. 이것은 하택신회의 '무념설(無念說)'로, 이후 일본의 도원에 이르기까지 사유를 거부해 온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사상은 일원론에 기초할 때 가능하다. 도신 홍인 신수 혜능 신회 마조 백장 황벽 임제에 이르기까지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 하여 주장된 '불성내재론'은 '자아' 이론과 같이 이원론적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

논평 김종명(동국대)=선불교의 수행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한국의 승단과 불교학계에서 활발히 전개돼 왔다. 불성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시도는 한국학계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의 본성론적 전제들에 대한 반성-종림스님(고려대장경 연구소장)=불변의 실체를 전제로 하는 본성론적 사고는 비불교적인 입장으로, 인간의 삶을 빗나가게 하는 출발점이 인간을 이끌어주고 규정지어 주는 어떤 실재로서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환상에서 비롯된 것다. 연기의 법 역시 이러한 이원론적 구조속에서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비롯된 불교의 신앙화 경향이 타락인지 발전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불교의 본질적인 면을 변화시켰을 뿐만아니라 불교의례에 다른 종교적인 신앙을 습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논평 홍성기(송실대 교수)=불성에 대한 체험적 이해를 부정할 경우 진정한 불교와 비불교의 구별은 불가능해진다. 불교를 '연기'와 '무아'로 못박으려 해도 체험적 이해가 없는한 다양한 해석은 불가피하다.

## 3분과: 한국선불교 깨우침의 이해 — 조사선의 기본정신 자타불이 이웃사랑

▪조사선(祖師禪)의 수행체계-성본스님(동국대 교수)=조사선의 기본정신은 자각된 근원적인 평상심(平常心=本來心)으로, 일상생활을 일체의 경계에 매몰되거나 걸림없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활종교다. 오염없는 자각된 평상심으로 무애자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체득해야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와 즉심시불(卽心是佛)의 선생활을 할 수 있다. 조사선의 수행체계는 △좌선수행의 실천 △선문답을 통한 수행 △작무(作務)와 노동생활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것일뿐 그 기본적인 정신은 평상심(본래심)으로 일상 생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조사선의 수행체계는 곧 선의 생활의 전부인 참선이다. 조사선에서 말하는 선은 본래심, 즉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면 참선은 이러한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각적인 자신을 만들어가는 선의 생활이다. 불도(佛道)나 참선, 불법(佛法) 모두 자기 자신의 일인 것으로, 참선은 결국 스승에게 참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참문하는 수행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논평 김성철(중앙승가대 교수)='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것은 부처와 조사의 진정한 정신을 계승하라는 임제스님의 고언(苦言)이다. 이 시대에 진정한 조사선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과거 조사선의 정신은 계승하나 그 언어와 형식은 극복해야 한다.

▪참사람 되는 길-박성배(뉴욕주립대 교수)=조사선이란 '깨친 스님들의 선'으로, '참사람'이란 조사선을 주장하는 스님들이 바라는 '참된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사람이 되는 길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이웃사랑을 △너와 나를 구분하는 보통사람들의 이웃 사랑 △너와나의 구별이 없는 성자들의 이웃사랑으로 분류한다면,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이웃사랑이야말로 '조사선의 사랑'이며 '참사람의 사랑'이 아닐수 없다. 깨친 눈으로 보면 우리들이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참나'가 아닌 것처럼 조사선의 참사람 사상은 연기설과 일즉일체(一卽一體)를 지금 이 자리의 '나' 자신에게서 보자는 것이다.

논평 안옥선(전남대)=우리는 자본주의 가치 지향의 사회이면서 자유주의 가치 지배적인 사회 속에서 자비 지향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다른 구체적 방법들이나 전략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제선과 한국 조사선 전통-심재룡(서울대 교수)=한국 선불교는 임제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종파로 확립되지 않았고, 또한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종파의 이름으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임제록〉은 한국 선불교 전통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나의 전통이 확립될 때, 어떤 것은 선택되어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버려지면서 전통은 변화된다. 한국 선가(禪家)에서의 '참사람 결사운동'은 〈임제록〉에 있는 '무위진인(無爲眞人)'의 사상을 이어나가며 임제선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분과: 선불교의 현대적 의미 — 선은 국가·종교 얽매이지 않는 보편성

▪현대 과학시대에 있어서의 선의 의미-김용정(동국대 명예교수)=선은 세계의 어느 국가·민족·종교·사상·문화적 형식에도 매이지 않는 일종의 절대적 보편성을 갖고 있다. 선은 모든 국가의 정치·경제 등 사회생활의 보편적 기반이 될 수 있을 망정 그것들에 배치되지는 않는다. 현대 과학문명을 기계의 문명, 소유의 문명, 욕망확대의 문명, 투쟁문화라 한다면 선문화는 생명의 문화, 무소유의 문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문화, 화합의 문화라 할 수 있다. 현대과학은 불교와 배치되는 면과 일치되는 면과의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대과학을 수용함에 있어 이 점을 잘 통찰해야 한다. 문제는 현대 과학문명시대의 사람들은 복잡 다난한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 본연의 인간성을 잃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선수행 뿐이다.

논평 최순택(원광대)=선은 과학적 탐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자기힘으로 깨달아 가는 자력내심의 수행법이다. 따라서 과학문명세계의 종말적 현상을 직접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인간존재의 진면목이며 우주의 본체이다.

▪동북아 불교의 생태학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스튜어트 맥팔레인(英 랭카스터대 교수)=환경에 대한 불교의 논점을 △비관불교적 관점 △참여불교적인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관점은 불교의 본질과 자연관의 형성,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책 등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나 관점의 기초는 불성이나 최초의 깨달음 등에 두고 있다.

참여불교의 관점은 자본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한 도전은 인간조건의 분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는 것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위기에 대응을 할 원동력까지 불교에서 구하고 있다. 비관불교 관점은 불교가 인간본성이나 인간조건에 대한 실체주의적인 가정들에 대해 도전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

▪본각사상과 무념:선에 대한 비판불교의 입장, 그에 대한 답변-찰스 율러(도요가쿠엔대 교수)=불교는 처음부터 연기라는 개념적인 틀을 통해 실체화된 자아를 논박해 왔으나 비판불교의 입장에선 불교학자들은 실체화된 자아-아트만에 대한 믿음에 바탕, 여래장 사상이나 본각사상의 개념이 본래의 불교와는 다르다는 확신에 차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선의 가르침 '무심(無心)'은 종교적 수련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중·일 각각의 선에 대해 비판이 가해져야 함에도 오직 본각사상과 선교리 전반에 대한 개념들이 독특한 일본선만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정리=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 무차선회 이모저모

### 법회시작 폭우그쳐

○…무차선회 개최 하루 전인 17일 저녁부터 폭우가 내리자 무차선회조직위원회는 첫날 대웅전 앞 노천에서 열리는 고승법회를 우려해 안절부절. 그러나 아침까지도 쏟아지던 폭우가 법회 시작 무렵에 완전히 그치자 부처님 가피라고 다들 가슴을 쓸어내렸다. 특히 운문암에 주석하는 서옹스님은 밤새 불어난 계곡물로 백양사로 내려오는 길이 두절돼 급히(?) 달려온 소방차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법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 "역시 대선사" 찬탄

○…이번 무차선회의 주창자인 서옹스님은 8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법해 노익장을 과시. 주장자로 법상을 내리치며 법당이 떠나가도록 '할'을 하자 사부대중은 "역시 대 선사"라며 찬탄을 금치 못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로 존경을 표했다.

### 인터넷 지구촌 생중계

○…이번 무차선회는 첫날부터 행사진행의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해 화제가 됐다. (주)나우콤의 협조로 비백교학연구소의 '인드라넷

(http://indra.indranet.net)' 사이트를 통해 고승법회의 법문과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제공했다.(사진) 또 현장의 소리를 웨이브 파일(소리파일)로 가공, 안방에서도 무차선회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했다.

### 김대중대통령 축전 보내

○…5일간 진행된 무차선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온 것을 비롯 교계 안팎의 유명인사와 30여명의 신문·방송사의 취재진이 몰려 무차대회에 쏠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18일 오후 백양사에 도착한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1배를 올린 뒤 서옹스님을 친견하고 백양관광호텔에서 행사 관계자 및 참석자들에게 저녁 만찬을 베풀었다.

### 자원봉사자 활약 돋보여

○…이번 무차선회에는 자원봉사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학생 주부 등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렸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천주교 신자 2명과 기독교신자 1명도 동참해 화제가 되기도. 한 타종교 자원봉사자는 "불교에서 여는 무차선회에 대한 궁금함을 해결하고자 참석했다"며 "큰스님들의 법문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 불교학자 7백명 참석

○…나흘간 열린 '한국선 국제학술대회'에는 '조사선의 전통확립과 재조명'이라는 흥미로운 주제탓인지 국내·외 7백여명의 불교학자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티벳 승려 3명과 수녀 2명, 원불교 교무 3명이 행사장 바깥에 마련된 멀티비젼을 통해 논문 발표과 논평을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